

엄은솔 '흐르지 않는 물, 번지지 않는 불' ... 붙잡을 수 없는 자연의 존재

아트코리아방송 이용선 기자 | 2026. 7. 14. 12:33

- 7.23 (목) - 2026.8.15(토)까지 김리아갤러리



Soul Eunsol Eom, <밤이를 안은 은솔 레오나르도 다 빈치 - 흰 족제비를 안은 여인 (1489-1490)' 오마주>, oil on canvas, 40.9 × 31.8 cm, 2024. 김리아갤러리 제공

김리아갤러리는 오는 7월 23일부터 8월 15일까지 엄은솔 개인전 '흐르지 않는 물, 번지지 않는 불'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현실과 환상, 인간과 자연의 경계를 넘나들며 독자적인 회화 세계를 구축해 온 작가의 신작을 중심으로, 자화상과 드로잉 시리즈를 함께 선보인다. 서로 다른 형식의 작업들은 하나의 세계관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인간 존재와 자연을 둘러싼 질문을 확장한다.

엄은솔의 화면은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에 고정되지 않는다. 인물들은 끊임없이 이동하고, 실내는 어느새 광활한 자연 풍경으로 이어지며, 산과 바다는 실제 공간이 아닌 심리적 풍경으로 변모한다. 현실과 비현실, 인간과 환경은 명확한 경계를 잃고 서로 스며들며 하나의 서사를 이룬다. 이러한 화면 구성은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인식 자체가 얼마나 불완전한가를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전시 제목인 '흐르지 않는 물'과 '번지지 않는 불'은 작가가 제시하는 핵심 개념이다. 본래 물은 흘러야 하고 불은 번져야 하지만, 엄은솔은 그림이라는 매체 안에서 그 움직임을 정지시킨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물과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은 더 이상 자연의 물성이 아니라 인간이 붙잡아 두려는 욕망의 형상으로 변한다. 자연을 이해하고 소유하려는 의지가 회화 안에서 일시적으로 실현되는 듯 보이지만, 그 질서는 끝내 허상에 머무른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주목되는 것은 극적인 상황과 인물들의 태도 사이에 형성되는 긴장감이다. 불길에 치솟는 풍경 속에서도 인물들은 태연히 차를 마시고, 깊은 물속에서는 서로를 끌어안은 채 평온한 표정을 유지한다. 재난과 일상, 위기와 평온이 충돌하는 장면은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도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세계를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암시한다. 이러한 연출은 단순히 비현실적인 장면을 구성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작가는 재난을 극적으로 소비하기보다 일상과 공존하는 각각으로 전환하며, 자연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불안과 경외, 체념과 욕망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적인 심리를 포착한다. 평온해 보이는 화면은 오히려 인간 내면에 자리한 불안과 불확실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자화상과 드로잉 시리즈도 함께 공개된다. 자화상은 자연과 세계를 바라보는 작가 자신의 시선을 직접적으로 투영하고, 드로잉은 회화에서 펼쳐지는 서사의 단서를 제공하며 하나의 세계관을 더욱 입체적으로 완성한다. 각각의 작업은 독립적인 형식을 취하면서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엄은솔 특유의 서정적이면서도 철학적인 회화 언어를 구성한다.

‘흐르지 않는 물, 번지지 않는 불’은 자연을 재현하는 전시가 아니라 자연을 마주하는 인간의 태도를 탐구하는 전시다. 흐름을 멈춘 물과 번짐을 잃은 불은 결국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낸 상징적 장치이며, 그 장치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자연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자각하게 된다.

엄은솔은 현실과 환상이 교차하는 조용한 풍경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위계를 뒤집는다. 그리고 그 고요한 화면 속에서 통제할 수 없는 세계를 끝내 붙잡으려는 인간의 욕망과 그 욕망이 드러내는 존재의 한계를 담담하면서도 깊이 있게 성찰한다.

[출처: 아트코리아방송]

<https://www.artkoreatv.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465>